

< 제 63회 변리사시험 3교시 지구과학 총평 >

일비스 지구과학 전임 박 준 희 강사

이번 제 63회 변리사 지구과학 문제는 매우 평이한 수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난이도가 높아졌던 2024년 제 61회 시험에 비하면 제 62회 시험에 이어 이번 제 63회 문제도 **매우 무난한 출제**였습니다. 다만, 기출이 많았던 part나 반복되는 보기보다는 **기출된 바 없는 내용이나 새로운 문장의 보기가 다수** 보여, 수험장에서 얼마나 **담담하고 평온하게 문제를 받아들이느냐를 test**하는 듯한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리사 시험을 위한 지구과학 공부를 기본 교재와 기본 강의를 기준으로 찬찬히 반복하신 분들이라면 **10개 모두, 최소 9개는 맞추실 수 있는 수준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영역별로 보자면, **지질학(고체 지구과학) 파트가 총 다섯 문제로 최근 경향 그대로 지질학 집중이 두드러졌으며, 대기과학 두 문제, 해양학 한 문제, 천문학 두 문제**였습니다. 아래에 각 문제별 출제 영역과 High-End 지구과학 교재의 장별 출제 부분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문제	정답	교재	A형 문제 기준 - 해당 파트
1	4	Ⅱ	날씨와 기후
2	2	Ⅲ	판구조론 (판 경계부의 특징)
3	3	Ⅳ	절대연대 계산
4	3	Ⅳ	지질시대와 표준화석
5	4	Ⅱ	포화수증기압, 빙정설, 병합설
6	5	Ⅲ	현무암질 마그마와 화강암질 마그마의 비교
7	1	I	지진, 지진파, 층별 특징
8	2	Ⅱ	해일, 천해파
9	4	V	일식과 월식
10	5	V	우리은하의 특징

무난한 출제로 편안하게 점수를 얻을 수 있으셨으리라 생각되는 반면, 기출된 Part만 공부하거나 기출 문제만 풀어보는 식으로 다소 요식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있다면 생소하고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기출문제는 늘 중요하지만, 기본 강의와 기본 교재를 충실하게 이해하고 인지하는 것이 먼저임을 확인시켜준 문제였습니다. 시험을 준비할 때는 범위와 level 모두 120%를 준비하고서, 수월하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 바, 공들여 준비하신 수험생분들께 수고와 칭찬의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다시 한번 지구과학이 대부분의 수험생분들께 확실한 점수 확보 과목이 되었을 것이라 판단되어,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원하시는 결과를 받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피로한 마음과 몸을 기특히 여기며, 끝까지 수고한 본인을 칭찬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종 합격을 위한 의지를 다져, 새 계획을 진행하시는 생산적인 시간을 가지시기를 조언드립니다. 이상 제 63회 지구과학 기출 총평을 마칩니다.